

## 근대 일본어 조선 설화집에 수록된 단군 신화의 양상\*

박성혜\*\*

- I. 머리말
- II. 단군 신화가 수록된 일본어 조선 설화집의 현황
- III. 서사의 요약을 통한 시조 단군의 소개
- IV. 서사의 각색을 통한 꿈의 변신과 결연담의 강조
- V. 자료의 나열을 통한 일선동조론과 단군부정론의 제시
- VI.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근대에 출판된 일본어 조선 설화집에 수록된 단군 신화의 현황을 확인하고 그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논의 결과 단군 신화가 수록된 일본어 조선 설화집은 1891년부터 1943년까지 총 13종이 확인된다. 그리고 여기에 수록된 단군 신화는 단군론 기술 여부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단군론이 기술되지 않은 단군 신화는 『동국통감』에 수록된 단군 신화나 『삼국유사』 「고기」형의 서사 단락을 매우 요약하여 기술한 것과 『삼국유사』 「고기」형의 서사 단락을 수용하면서 각색한 것으로 구분된다. 1891년의 텍스트에 수록된 단군 신화는 『동국통감』을 전제한 것으로, 일본 인들은 『동국통감』의 이해에서 비롯된 단군 신화를 바탕으로 단군을 한반도의 역사적 기원으로 인식한 것을 볼 수 있다. 1908년도의 텍스트는 주몽과 단군을 헛갈리기도 한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1263)

\*\* 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강사

두 번째로 『삼국유사』 「고기」형의 서사를 각색한 경우 곰과 호랑이의 변신과 곰과 환웅의 결연에 초점을 맞춰 각색하였으며 이 흐름은 1919년부터 1943년 설화집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이는 이 설화의 향유자들이 단군이 탄생이나 고조선의 건국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단군 신화의 신성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곰의 변신담과 곰과 환웅의 결연담으로만 소비된 것이다.

다음으로 단군론이 기술된 신화는 일선동조론을 강조한 것과 단군 신화가 일연에 의해 날조되었다는 주장으로 구분된다. 이 두 경우 모두 『동국통감』이나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를 그대로 전제한 후, 자신들의 의견을 뒷받침해줄 자료들을 연이어 배치한다. 일선동조론을 주장하는 경우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본격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관련된 사료를 연이어 배치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단군 신화의 날조설을 주장하는 경우 당시 일본인 학자들의 근거를 답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핵심어: 단군, 단군신화, 일본어 조선설화집, 근대, 우스다 잔운, 나카무라 료헤이, 정인섭, 신래현

## 1. 머리말

본고는 근대 일본어 조선 설화집에 수록된 단군 신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양상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근대 단군 신화의 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역사학적 관점에서 대종교와 대종교도에 대한 연구, 국민이나 민족주의 개념의 형성 과정과 단군을 다룬 연구, 일본인들의 단군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문학적 관점에서 근대에 산출된 여러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하여 단군 신화나 단군 담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sup>1)</sup>

본고의 연구 대상인 근대 일본어 조선 설화집의 경우 설화집의 편찬자와 독자가 주로 일본인이라는 점에서 일본인들의 단군론 연구에 해당한다. 그

1) 근대의 단군 신화 연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줄고를 참고할 수 있다(박성혜, 「근대계몽기 단군 이야기의 양상과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11면).

러나 이 자료는 당시 단군론을 생성하고 확장하였던 일본인 학자들이 생산한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단군론 연구에서 다루지지 않았다.

일본어로 된 조선 설화집에 대한 선행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일본어로 된 설화집의 목록을 소개하는 것과 개별 설화집이나 개별 설화에 대한 논의로 나뉜다. 먼저 설화집의 목록을 소개한 논문을 살펴보면, 조희웅은 1910년대에 일본어로 간행된 주요한 자료집 다섯 권을 소개하였으며,<sup>2)</sup> 권태효는 1920년대 이후 한국인과 일본인에 의해 발간된 설화집을 소개하고 그 목차와 서지사항 등을 소개하였다.<sup>3)</sup> 본격적인 일본어 조선 설화집의 목록을 작성한 것은 송혁기의 연구로 그는 한국인, 일본인, 서구인의 설화집 전반을 목록으로 제시하였으며,<sup>4)</sup>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일본어 조선 설화집 자료 38종을 소개하였다. 이에 더해 연속간행물이나 신문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도 함께 소개하여 일본어 조선 설화집의 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어서 김광식은 일본어 조선 설화집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고 총 47종의 설화집에 수록된 설화의 시대적 배경을 소개하였다.<sup>5)</sup> 이 논문은 일본어 조선 설화집에 실린 신라 담론과 경주의 신화와 전설을 다루는 과정에서 단군 신화가 수록된 설화집 10개를 소개하였다.

이렇게 설화집의 목록이 점차 구체화되는 한편, 개별적인 설화집이나 개별 설화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많은 선행 논의 중 대표적인 논의들을 소개하자면, 권혁래, 김광식·이시준의 연구를 들 수 있다.<sup>6)</sup> 이 연구들은 앞선 목록들을 바탕으로 개별 설화집의 성격, 편찬자, 편찬 의도 등을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어 조선 설화집의 영인본이나 번역서 등도

2) 조희웅, 『일본어로 쓰여진 한국설화/한국설화론(1)』, 『어문학논총』 24, 국민대학교 어문학 연구소, 2005, 17면.

3) 권태효,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문헌신화 자료 수집 및 정리 현황과 문제점』, 『한국민속학』 44, 한국민속학회, 2006, 21면.

4) 송혁기,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한국 설화 자료의 현황과 문제점』, 동양학연구소 편,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한국 문화 전통의 자료와 해석』, 단국대학교출판부, 2007, 63~103면.

5) 김광식, 『근대 일본의 신라담론과 일본어 조선 설화집에 실린 경주신화·전설 고찰』, 『연민학지』 16, 연민학회, 2011.

6) 권혁래, 『일제 강점기 설화 동화집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김광식·이시준, 『식민지 시기 일본어 조선 설화집 기초적 연구 1』, 제이앤씨, 2014; 김광식, 『식민지 조선과 근대설화』, 민속원, 2015; 이시준·김광식 외, 『식민지 시기 일본어 조선 설화집 기초적 연구 2』, 제이앤씨, 2016; 김광식, 『근대 일본의 조선 구비문학연구』, 보고서, 2018.

출간되어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그러나 주로 개별 설화집의 성격 규명에 집중하였으며, 단군 신화와 관련된 연구는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근대 일본인들의 단군론에 대한 연구와 일본어 조선 설화집에 대한 연구가 각각 진행되고 있었지만, 아직 일본어 조선 설화집에 수록된 단군 신화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적이 없다. 이는 매체의 특성상 이 설화집의 주된 독자층이 일본인이었고, 일본인들의 단군론이나 한국인들의 단군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어 조선 설화집에 실린 단군 신화는 일본인들의 단군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일본어 조선 설화집은 이를 편찬한 일본인들의 단군 신화에 대한 인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 학자들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던 단군 신화가 일본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어 조선 설화집에 수록된 단군 신화에 대한 분석은 단군 신화 연구사의 폭을 넓히고, 일본인들의 단군론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일제의 식민지 문화 구성의 한 단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어 조선 설화집에 실린 단군 신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광식은 그의 논문에서 “일본어 조선 설화집에는 단군 신화가 10화 정도 수록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를 포함한 일본어 조선 설화집의 성격에 관한 구체적인 고찰은 앞으로의 과제다”<sup>7)</sup>라고 명시하며 일본어 조선 설화집에 수록된 단군 신화의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렇듯 일본어 조선 설화집에 실린 단군 신화는 단군 신화의 연구사적 흐름이나, 일본어 조선 설화집의 연구사적 흐름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어 조선 설화집의 단군 신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일본어 조선 설화집에 수록된 단군 신화의 현황을 확인하고, 각 텍스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일본어 조선 설화집을 확인하여 총 13종의 일본어 조선 설화집에 수록된 단군 신화를 확인하였다.

13개의 텍스트에 수록된 단군 신화들을 살펴보면, 단군론의 유무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지고, 이들이 각각 두 가지로 구분되어 크게

7) 김광식, 앞의 논문, 183면.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단군론이란 단군과 관련된 담론으로, 본고에서 지칭하는 단군론의 사례는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생성되고 확장되었던 일선동조론과 단군부정론에 해당한다. 일선동조론의 경우 그 내용과 외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으나,<sup>8)</sup> 본고에서는 일본사와 조선사의 시원을 거슬러 올라가 일본과 조선이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지배적 위치를 주장하는 담론이라는 통상적인 의미로 이해한다. 단군부정론은 단군 신화를 고조선의 건국을 설명하는 신화로, 고조선의 시조를 단군으로 보는 시각을 부정하는 담론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13개의 텍스트를 구분해보면, 단군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서사 차원에서 단군의 내력을 아주 짧게 언급한 것과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수록된 단군 신화를 변형하거나 확장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각각 본고의 2장과 3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단군론이 추가된 경우 단군 신화의 내용을 서술한 후, 신화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를 적는다. 이 경우 단군론의 성격에 따라 일선동조론을 주장하는 것과 단군부정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5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13개 설화집의 서지사항을 밝힌 후, 각 유형별로 단군 신화의 서사 단락과 서술 방식을 확인하고, 이러한 특징들이 당시 단군론과 조응하며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의 단군 신화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히고, 일본인들의 단군 인식이 구체화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I. 단군 신화가 수록된 일본어 조선 설화집의 현황

필자는 일본어로 채집된 조선 설화집과 일본어 단행본을 포함하여 단군 신화가 수록된 13개의 텍스트를 확인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설화집의 저자, 책의 전반적인 내용과 편찬 목적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8) 일선동조론의 개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심희찬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심희찬, 『일선동조론의 계보학적 검토를 위한 시론』, 『한일관계사연구』 65, 한일관계사학회, 2019).

	설화집 이름
1	石井研堂, 『朝鮮兒童畫談』, 學齡館, 1891.8., 동경
2	薄田斬雲, 『暗黒なる朝鮮』, 日韓書房, 1908.10., 경성(1909년再版)
3	三輪環, 『傳説の朝鮮』, 博文館, 1919.9., 동경
4	山崎日城, 『朝鮮の奇談と傳説』, ウツボヤ書籍店, 1920.9., 경성
5	朝鮮總督府, 『朝鮮』, 小田幹次郎, 『濶突閑話』, 1920.10.
6	中村亮平 編, 『朝鮮童話集』, 富山房, 1926.2., 동경
7	朝鮮山林會慶北支部編, 『朝鮮に於ける山林と傳説』, 1926.9., 大邱
8	鄭寅燮, 『濶突夜話』, 日本書院, 1927.3., 동경
9	前野福藏, 『朝鮮の文化と迷信』, 柳生堂, 1930.8., 山口縣,
10	松村武雄 編, 『神話傳説大系第14卷』支那・朝鮮・臺灣神話傳説集』, 近代社, 1929, 동경
11	社會教育會 編, 『日本郷土物語』 下, 大日本敎化圖書株式會社, 1934.12., 동경
12	朝鮮研究社 編, 『躍進之西鮮』, 朝鮮研究社, 1940.10., 경성
13	申來鉉, 『朝鮮の神話と傳説』, 一杉書店, 1943.9., 동경

먼저 이시이 겐도[石井研堂(石井民司), 1865~1943]의 『조선아동화담(朝鮮兒童畫談)』(1891)을 살펴보자. 이시이 겐도는 재야에서 활동한 문화사자로, 1889년부터 학령관에서 발행한 아동 잡지인 『소국민(小國民)』의 편집주임을 역임했다.<sup>9)</sup> 서문에 따르면 『조선아동화담』은 원산(元山)에 거주하던 일본인 나이토 세이지[內藤盛治]와 연락하고, 조선인 김준근(金俊根)이 그린 그림 10장에 해설을 붙여서 편찬한 것으로, 상업 등을 이유로 조선에 가는 일본인들에게 조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책이다. 목차를 살펴보면 조선국 지리, 역사, 아동의 풍속, 유희, 아동 교육법, 원산의 일본소년 교육법이 차례대로 제시된다. 단군 신화는 이 중 ‘조선국 역사’에 적힌 내용이다. 이 텍스트는 설화집은 아니지만,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단군 신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른 시기의 자료이다.

두 번째로 우스다 잔운[薄田斬雲(薄田貞敬), 1877~1956]의 『암흑의 조선(暗黒なる朝鮮)』(1908)을 살펴보자. 우스다 잔운은 만 30세였던 1907년 2월부터 1909년 3월까지 약 2년간 《경성일보》 사회부 기자를 역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0)</sup> 우스다 잔운은 『암흑의 조선』 외에도 일한서방의 월간 종합

9) 김광식, 『조선아동화담』 번역, 『식민지 조선과 근대설화』, 민속원, 2015, 223면.

잡지 『조선』에 글을 기고하였으며, 조선 체류 경험을 적은 수필집 『요보기(ヨボ記)』(1908.6), 조선의 견문을 삽화로 정리한 『조선만화(朝鮮漫畫)』(1909)를 출간하였다.<sup>11)</sup> 『암흑의 조선』은 조선의 풍습이나 민속에 대해 소개하는 텍스트로, 서문에서 “이 책은 조선의 암흑을 향해 성냥 한 개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sup>12)</sup>라고 언급한다. 이는 우스다 잔운이 조선을 어두운, 즉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곳으로 인식한 것을 보여주며, 이 태도가 그대로 제목에 반영되었다. 이 책의 마지막에 『조선총화(朝鮮叢話)』라는 제목으로 27편의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단군신화는 ‘(10) 알에서 탄생했다(卵から生れた)’라는 제목으로 박혁거세, 석탈해 신화와 함께 실려있다. 이 텍스트는 일본의 한국강제합병 이전에 편찬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와 다마키[三輪環]의 『전설의 조선(傳説の朝鮮)』은 1910년대에 조선에서 간행된 일본어 조선 설화집이 본격적으로 제국 일본의 내지까지 확대된 계기가 된 설화집이다.<sup>13)</sup> 미와 다마키는 1915년부터 1919년 9월까지 평양 고등보통학교 국어(일본어) 교사를 역임하고 퇴직 직후 도쿄의 박문관에서 설화집을 출간하였으며, 이는 일본에 있던 저우쥬런[周作人]을 통해 중국어로 번역되기도 하였다.<sup>14)</sup> 서문에 따르면 이 설화집은 구전 자료를 채록한 것으로, 후대의 설화집에 큰 영향을 주었다.<sup>15)</sup> 이 설화집은 산천 34화, 인물 38화, 동식물 및 잡 42화, 동화 25화 총 139화를 분류해서 수록하고 있는데, 단군 신화는 인물 전설에 수록되어 있으며, 인물 전설의 경우 구비전설보다 문헌신화와 전설이 더 많이 수록되어 있다.<sup>16)</sup>

네 번째로 야마사키 겐타로[山崎源太郎]의 『조선의 기담과 전설(朝鮮の奇談と傳説)』(1920.9)을 살펴보자. 야마사키 겐타로 역시 우스다 잔운처럼

10) 김광식·이시준, 『식민지 시기 일본어 조선 설화집 기초적 연구』, 제이앤씨, 2014, 88~90면.

11) 김광식·이시준, 위의 책, 90면.

12) 우스다 잔운, 이시준 역, 『완역 암흑의 조선』, 2016, 박문사, 9면.

13) 김광식·이시준, 앞의 책, 218면.

14) 김광식, 『근대 일본의 조선 구비문학 연구』, 보고서, 2018, 117~121면.

15) 염희경,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나타난 호랑이상』, 『동화와 번역』 5, 동화와 번역연구소, 2003, 5면; 조희웅, 앞의 논문, 20~21면; 김환희, 『〈나무꾼과 선녀〉와 일본〈날개웃〉설화의 비교 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가능성』,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92면; 박미경, 『일본인의 조선전담 연구고찰』, 『일본학연구』 28, 단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9, 80면.

16) 김광식·이시준, 앞의 책, 234, 237면.

신문 기자였다. 그는 1903년 조선에 와서 《인천상보》, 《조선일일신문》을 거쳐 《경성일보》 기자로 1919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sup>17)</sup> 이 인연으로 경성일보 사장인 가토 후소[加藤扶桑]가 서문을 써 주었다. 가토는 서문에서 일본과 조선의 동근동원을 믿는다고 언급하는데, 실제로 그는 내선융화단체 대정친목회의 고문으로 활동하였고, 잡지 『동원(同源)』을 발간해 일선동원론을 확산시켰다.<sup>18)</sup> 야마사키 겐타로 역시 권두언(卷頭言)에서 “경성일보 사장 가토 선생 등 유지의 발기로 동원회 등이 생겨났으므로, 소생이 열망하는 진정한 내선인 융화가 점차 실현될 것임을 믿고”<sup>19)</sup>라고 말하며 내선 융화라는 집필 목적을 드러낸다. 책은 사담신화(史談神話), 관인기질(官人氣質), 부자사제(父子師弟), 여러 여자(女いろく), 장삼이사(張三李四), 괴담귀화(怪談鬼話)로 구성되었으며, 단군신화는 사담 신화에 첫 번째로 수록되어 있다.

다섯 번째로 오다 미키지로[小田幹次郎, 1875~1929]의 『온돌한화(溫突閑話)』(1920.10)를 알아보자. 『온돌한화』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조선(朝鮮)』에 수록된 것이다.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하는 월간 잡지였던 『조선』은 『조선총독부월보(朝鮮總督府月報)』(1911)가 『조선회보(朝鮮彙報)』(1915)로 이어졌다가 바뀐 것으로, 3·1운동 이후 교양 잡지를 표방하며 1920년 7월부터 발간되었다.<sup>20)</sup> 『조선』은 본문 기사에서 시정과 관련된 회보나 임면 등의 기사는 적은 비중으로 배치하였으며, 독자층은 일본어 해독이 가능한 조선인, 총독부 관리, 재조일본인과 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이었다.<sup>21)</sup> 『온돌한화』를 쓴 오다 미키지로는 1907년부터 1923년까지 조선에서 사법실무와 관습조사에 종사하였는데, 그는 이외에도 고적조사, 조선어 사전심사위원, 조선사편찬위원회 위원, 조선총독부월보, 조선회보 편찬위원을 두루 거쳤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sup>22)</sup> 그가 『조선』의 전신이었던 『조

17) 이시준·김광식, 『1920년대 전후에 출판된 일본어 조선 설화집에 관한 기초적 연구』, 『외국문화연구』 53,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4, 272면.

18) 장신, 『3·1 운동 직후 잡지 『동원』의 발간과 일선동원론』, 『역사와 현실』 73, 한국역사연구회, 2009, 273~275면.

19) 야마사키 겐타로, 이시준·장경남·김광식 역, 『조선의 기담과 전설』, 제이앤씨, 2014, 26면.

20) 조형근, 박명규, 『식민권력의 식민지 재현전략-조선총독부 기관지 『조선』의 사진이미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90, 한국사회사학회, 2011, 187면.

21) 위의 논문, 191면.

선취보』의 편찬위원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조선』의 편찬에도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은돌한화』가 수록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은돌한화』에는 <환웅, 곰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다>, <언니의 꿈을 산 김유신의 누이>, <제주삼성혈의 고사>가 수록되어 있다.

여섯 번째로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 1887~1947]의 『조선동화집(朝鮮童話集)』(1926.2)을 살펴보자. 나카무라의 『조선동화집』은 적어도 6판을 거듭하며 일본에서 판매되었기 때문에<sup>23)</sup> 일본인들의 조선 설화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본고의 분석 결과 후대의 설화집에 큰 영향을 끼쳤다. 나카무라는 이 외에도 『신화전설대계 제14권] 지나, 조선, 대만신화전설집』(1929)을 편찬하였는데, 이 텍스트 역시 약간씩 제목을 바꿔가며 10판 전후로 증쇄되었다.<sup>24)</sup> 나카무라는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심경의 변화를 겪고 조선행을 결심하였고, 이후 울산보통학교에서 미술 교사를 하다가 국어(일본어)도 담당하게 되었다.<sup>25)</sup> 미와 다마키가 국어 교사를 하면서 국어 작문을 통해 조선의 설화를 수집했던 것처럼, 나카무라도 수업을 통해 조선 설화를 수집하고, 총독부 교과서, 일본어, 한문 서적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추정된다.<sup>26)</sup> 『조선동화집』은 서문에 따르면 “아름다운 이야기, 기분 좋은 이야기, 조선 다운 이야기”등을 선택하여 일본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내지의 이야기들과 같거나 매우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랜 옛날부터 어딘가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sup>27)</sup> 즉, 일본의 설화와 유사하면 서도 아름답고 기분 좋고, 조선다운 이야기를 일본인들에게 소개하려는 목적에서 이 설화집을 집필한 것이다. 목차를 살펴보면 동화, 이야기, 전설로

22) 이승일, 『오다 미키지로(小田幹次郎)의 한국 관습 조사와 관습법 정책』, 『한국민족문화』 4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169~172면.

23) 김광식·이시준, 앞의 책, 2014, 282면.

24) 위의 책, 282~283면(본고에서는 일본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支那, 朝鮮, 臺灣 神話と傳説』(1935.9.중판, 大京堂판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25) 김광식·이시준, 앞의 책, 286면.

26) 위의 책, 286~287면.

27) 나카무라 료헤이, 김영주·이시준 역, 『완역 나카무라 료헤이의 조선동화집』, 박문사, 2016, 11면.

구분되는데, 단군신화는 전설의 맨 처음에 <조선의 시조 단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지나, 조선, 대만신화전설집』(1929)은 나카무라가 마츠무라 타케오[松村武雄]와 함께 편찬한 것으로 조선, 대만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나카무라가 담당하였다. 조선신화전설집은 건국전설과 제국(諸國)전설로 구분되는데, 단군 신화는 <조선의 시조 단군>이라는 이름으로 건국 전설의 가장 첫 번째 항목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외에도 설화의 소개에 앞서 <조선신화전설 개관>이 적혀있는데, 여기에서 단군 신화에 대한 나카무라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여덟 번째로 조선산림경북지부에서 편찬한 『조선에서의 산림과 전설(朝鮮に於ける山林と傳説)』(1926.9)을 살펴보자. 이는 경상북도 임산공진회(林産共進會)를 기념하고 산림을 아끼는 사상을 함양하기 위해서 조선 각지로 부터 산림과 관련된 전설을 현상 공모하여 편찬한 것이다. 단군신화는 <조선의 시조단군>이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는데, 경상북도 대구부 동운정(東雲町)에 사는 사람이 익명으로 보낸 설화로<sup>28)</sup>, 총 31개의 설화 중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으며, 대구에서 간행된 책이다.

아홉 번째로 정인섭(鄭寅燮, 1905~1983)의 『온돌야화(溫突夜話)』(1927.3)를 살펴보자. 선행연구에서 정인섭의 『온돌야화』를 논의하면서 일본어 판본을 다루지 않고, 영어로 출판된 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한국의 설화』<sup>29)</sup>를 다루었다.<sup>30)</sup> 그런데 『한국의 설화』에도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으나, 1927년에 출간한 일본어판 『온돌야화』에 수록된 단군 신화와 그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원문을 열람할 수 있는 일본어판 1927년 『온돌야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정인섭은 울산에서 출생하여 1926년에 와세다대 영문학과에 입학하였고, 1929년 귀국 후 연희전문 교수를 하였다.<sup>31)</sup> 『온돌야화』는 와세다대 영문과에서 정인섭이

28) 1926년 9월 3일자 <조선시보>의 기사에 따르면 응모자가 7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총 31개의 설화 중 익명으로 제보된 설화는 총 3건이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대구부 동운정에서 보낸 설화이다.

29) 최인학, 강재철 역, 『한국의 설화』, 단국대학교출판부, 2007.

30) 류정월, 『근대 설화집의 여성 형상화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6, 65~100면.

31) 박중훈, 『일제강점기 정인섭의 친일활동과 성격』, 『역사와 경계』 89, 부산경남사학회, 2013,

공부하던 시절 편찬한 것이다. 서문에서 창작이나 창작적 개작이 없이 “조선의 사머니즘”, 즉 “본연의 순박한 생활상”이 드러나는 설화만을 뽑아서 수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sup>32)</sup> 정작 수록된 단군 신화는 정인섭의 개작으로 보이는 부분이 확인된다. 『온돌야화』에는 조선의 신화, 동화, 전설, 기담, 괴담, 고대소설 등이 수록되어 있다.<sup>33)</sup>

다음으로 마에노 스즈키[前野福藏]의 『조선의 문화와 미신(朝鮮の文化と迷信)』(1930.8)을 살펴보자. 서문에 따르면 마에노 스즈키는 이 텍스트가 출간되던 당시에 함안 경찰서장이었으며,<sup>34)</sup> 그는 1920년도부터 거창, 동래, 마산 경찰서를 거쳐 1929년부터 1930년까지 함안경찰서의 서장직을 수행하였다.<sup>35)</sup> 『조선의 문화와 미신』은 조선의 문화와 조선의 미신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조선의 문화는 태고, 상고, 중고, 근고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류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상고에는 신공황후의 정벌, 임나일본부, 근고에는 정한론, 강화도조약과 같은 내용이 배치되는 등, 당시 제국 일본의 일방적인 시각에서 재단된 역사관이 확인된다. 단군신화는 제1절 태고의 1장 고조선 중 1절 북부조선에서 <시조단군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배치되어 있다.

열한 번째로 사회교육회에서 편찬한 『일본향토이야기(日本郷土物語)』(下)(1934.12)를 살펴보자. 이 설화집의 편자는 문부성(文部省) 내 재단법인 사회교육회로, 이 설화집은 일본의 민족적 의식, 즉 일본정신을 고취시키고 향토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일본 각지의 이야기를 모아서 정리한 것이다.<sup>36)</sup> 목차를 살펴보면 일본 각지의 이야기를 각 지역의 유지로부터 모아서 출판한 것이다. 지역마다 여러 사람들이 설화를 수록하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대만, 조선의 이야기도 수록되어 있다. 조선편의 경우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의 오쿠야마 센조[奥山仙三]가 맡아서 네 가지의 이야기를 수록하였는데, 불국사의 석가탑에 얽힌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影池物

178면.

32) 히나즈 코우노스케[日夏耿之介], 『濶突夜話之序』, 2~3면; 정인섭, 『序』, 3~4면.

33) 정인섭, 『序』, 8면.

34) 前野福藏, 『朝鮮の文化と迷信』, 柳生堂, 1930, 松山常次郎, 『序』.

35)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2022년 4월 6일 접속)

36) 社會教育會 編, 『日本郷土物語』下, 大日本敎化圖書株式會社, 1934, 『序』.

語), 에밀레 중 이야기(母を呼ぶ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羽衣)가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단군 신화가 적혀있다. 조선편을 서술한 오쿠야마 센조는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의 제자로 일본 동경외국어 대학 조선어과를 졸업한 후 조선으로 건너와 조선총독부에서 주관하는 조선어 강습회 강사로 재직하며 조선 주재 일본인 교원에게 조선어를 가르쳤다.<sup>37)</sup> 오쿠야마 센조의 기록은 1912년 12월 31일에 작성된 조선총독부 관보에서도 확인되며,<sup>38)</sup> 1917년에 조선어강습회 강사로 재직하면서 『조선어법 및 회화서』라는 한국어 교재도 간행하고, 1928년에는 『어법회화조선어대성(語法會話朝鮮語大成)』도 간행하였다.<sup>39)</sup>

열두 번째로 조선연구사에서 편찬한 『약진의 서선(躍進之西鮮)』(1940. 10)을 살펴보자. 이 텍스트는 황해도, 평안남북도 세 개의 도를 합쳐 서선이라 일컬으며<sup>40)</sup> 각 지역의 산업 현황, 지리적 특징과 역사 등을 다룬 것이다. 단군신화는 평안남도대관(平安南道大觀)에서 평안남도의 역사를 다루며 <단군조선의 전설>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신래현(申來鉉 1915~?)의 『조선의 신화와 전설』(1943.9)은 조선의 ‘민간전설’과 ‘건국신화’를 수록한 설화이다. 이 설화집은 1943년에 5천 부를 간행했고 1971년 일본에서 재간행되어 1981년에 개정판을 간행하는 등 일본의 조선 설화 이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sup>41)</sup> 신래현은 1915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1931년에 동경의 이쿠분칸(郁文館) 중학교에 편입하고 1940년에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졸업하였다.<sup>42)</sup> 『조선의 신화와 전설』에는 와세다대의 교수로 있던 연극학자 가와타케 시케토시[河竹繁俊]의 서문과 경성제국대학의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의 서문에 이어 신래현의 서문이 있다. 서문을 살펴보면<sup>43)</sup> 이 설화집이 대동아전쟁 하에서 일선의 용

37) 윤영민, 「조선 총독부 간행 『朝鮮語法及會話書』 연구」, 『일본어교육연구』 48, 한국일어교육학회, 2019, 145면.

38) 『조선총독부 관보』(국가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2022년 4월 6일 접속)

39) 윤영민, 앞의 글, 144~145면.

40) 朝鮮研究社 編, 『躍進之西鮮』, 朝鮮研究社, 1940, 『序』.

41) 김광식, 「신래현과 ‘조선향토전설’」, 『근대서지』 14, 근대서지학회, 2016, 439면.

42) 위의 논문, 439~440면.

43) 『朝鮮の神話と傳説』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본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자료가 17면부터 시작되어 서문을 확인할 수 없다. 본고에서 참고한 자료는 일본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

화에 공헌을 할 것이라는 언급이나<sup>44)</sup> 황국화의 사회화 과정에서 일정한 기능을 할 것이며, 조선의 신화 및 전설 중에 내선의 친연관계를 보이거나 만몽, 지나, 인도 등 아시아 여러 지역과 문화적 관련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는 언급<sup>45)</sup>이 확인된다. 이어서 신래현도 이를 통해 내선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상호 사랑하면 저자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말한다.<sup>46)</sup> 위의 언급은 이 책이 1940년대에 출판될 수 있었던 이유를 짐작하게 하며, 더불어 일본인 학자들이 이 설화집에서 기대한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 자료에는 민간전설과 건국신화가 수록되어 있으며, 건국신화에 <단군-고조선>이라는 제목으로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단군 신화가 수록된 일본어 설화집의 성격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저자의 경우 일본인들은 주로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했던 일본인 교사나 일본인 기자 및 조선총독부와 관련된 인물들이다. 그리고 정인섭과 신래현은 일본으로 유학을 간 이후 와세다대 영문과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다. 저자들의 배경은 이들이 편찬한 텍스트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서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은 식민지 조선을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암흑’ 또는 원시의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곳으로 묘사하거나 설화를 통해 식민지 조선과 제국 일본의 친연성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각은 단군 신화의 서술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 III. 서사의 요약을 통한 시조 단군의 소개

먼저 단군 신화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논의 없이 서사 차원에서 단군의 내력을 짧게 언급한 텍스트들은 두 개로, 이시이 겐도의 『조선아동화담』(1891)과 우스다 잔운의 『암흑의 조선』(1908)이다. 『조선아동화담』은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조선에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형성된 텍스트로, 조선의 역

는 자료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44) 신래현, 『朝鮮の神話と傳説』, 一杉書店, 1943, 河竹繁俊, 『序』.

45) 신래현, 위의 책, 秋葉隆, 『序』.

46) 신래현, 위의 책, 『はしがき』.

사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단군 신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매우 짧다.

## 2. 조선국역사

옛 당요(唐堯) 시기에 왕검(王儉)이라는 이가 스스로 단군(檀君)이라 칭하고 군장(君長)이 되었다. 그 자손이 일천여 년 계속되었는데, 기자(箕子)가 나와 이 나라에 봉해져 평양을 수도로 하여, 비로소 조선이라 하였다. 그 후 진인(秦人) 위만(衛滿)이라는 이로 인해 멸망되어, 마한, 진한, 변한이 되었다. 우리 신공황후의 친정(親征)은 이때의 일이다. 그 후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되어, 왕씨, 이씨로 이어져, 마침내 현재의 조선의 대조(大祖)가 되었다.<sup>47)</sup>

위 내용 중 단군과 관련된 내용의 서사 단락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왕검이라는 이가 스스로 군장이 되어 단군이라 하였다. ② 단군의 자손이 계속 이어졌다. ③ 기자 때 비로소 평양을 수도로 하고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단군 신화는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와 달리 단군의 출자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왕검이 스스로 군장이 되어 단군이라 칭하고, 그 시기가 ‘당요(唐堯)’이며, 단군의 자손이 천여 년 지속되었다고 적고 있다. 이처럼 단군의 출자에 대한 언급 없이 요임금 때 왕검이 군장이 되어 그 이름을 단군이라 했다는 내용은 권근의 『응제시(應製詩)』나 조선 초 『동국통감(東國通鑑)』에서 볼 수 있는 단군 신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아동화담』은 신인(神人)이 단목(檀木) 아래로 내려왔다거나, 국인들이 추대하여 단군을 추대하여 군주가 되었다는 내용이 없고, 단군이 도읍을 평양으로 하고 국호를 조선으로 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조선 초기 단군 신화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선아동화담』에 수록된 단군 신화의 내용은 『동국통감』에 수록된 단군 신화를 기반으로 서술된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내용상 『동국통감』에 수록된 단군 신화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기도 하고, 조선이라는 호칭이 기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언급은 일본에서 간행된 『동국통감』에 적힌 하야시 가호[林鶯峰] 서문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sup>48)</sup> 실제로 1667년

47) 김광식, 『『조선아동화담』 번역』, 앞의 책, 2015, 228~229면.

48) “번 태고(鴻荒) 때에 단군이 그 나라를 열었다. 그러나 중화로부터 들어와 다스린 것은 기

에 교토에서 『동국통감』이 출판된 후 당시 조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본의 지식인들은 『동국통감』을 읽었으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1713), 『에혼조선정벌기(繪本朝鮮征伐記)』(1853)에 단군 신화를 서술하기도 하였다.<sup>49)</sup> 『동국통감』을 비롯하여 『화한삼재도회』, 『에혼조선정벌기』에는 단군으로부터 한반도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인식이 드러나며 이는 당시 조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었다. 따라서 『조선아동화담』에 서술된 단군 신화 역시 일본에서 유통되던 지식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시이는 이러한 서술 이후 조선의 역사를 차례대로 서술하지 않고, 신공황후의 친정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왜란을 연이어 배치하는 서술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치는 『화한삼재도회』나 『에혼조선정벌기』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당시 『일본서기(日本書紀)』나 『고사기(古事記)』에서 습득한 고대 일본의 지식을 그대로 다른 나라의 역사에 투영하는 흐름에 따른 것이다. 『일본서기』와 『고사기』의 신화적 내용을 정확하게 고증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자신들의 생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사를 자신들의 틀에 맞게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단군 신화의 서술 이후에 배치된 신공황후의 친정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을 서술하는 방식은 당시 조선에 진출하고자 하는 일본인들에게 조선을 침략했던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켜주고, 강화도 조약 이후 자신들이 조선에 진출한 상황과 맞물려서 조선이 여전히 일본에 비해 열세라는 인식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두 번째로 우스다 잔운의 『암흑의 조선』(1908)에 수록된 『조선총화』를 살펴보자.

#### (10) 알에서 나다

조선인의 선조들은 대다수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져 내려온다. 즉 이 나라

자를 시조로 하며, 처음으로 조선의 호칭이 있었다.”(동양문고 소장 『동국통감』 서문, 권동우, 『근세 중기 일본 지식인의 삼한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7,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6, 239면 재인용)

49) 김영주·이시준, 『에도시대 출판물 속 단군신화』, 『외국문학연구』 63,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6, 12~26면.

의 개벽의 선조, 단군은 야수의 알에서 났다고 하는 내력을 들으니 다음과 같다.

동굴에 살고 있던 야수가 신의 명에 의해 여자가 되었다. 그러자 신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라는 자가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왔다. 이것을 신시제세리(神市在世理)라 한다. 이 세리(世理), 그의 여자를 찾아 임신을 시켰고 거기서 태어난 것이 단군인 것이다.<sup>50)</sup>

위에 기술된 단군 신화 역시 다음과 같은 서사 단락으로 구분된다. ① 동굴에 살고 있던 야수가 신의 명령에 따라 여자가 되었다. ②신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왔다. ③ 환웅이 그의 여자를 찾아 임신시켰고 단군이 태어났다.

『암흑의 조선』에 수록된 단군 신화는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단군 신화와 유사하다. 동굴에 있는 야수, 환인, 환웅, 태백산 신단수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드러내고, 환웅과 웅녀의 결연을 통해 단군이 태어났다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군이 태어났다는 것까지만 서술될 뿐, 도읍의 위치나 나라의 이름, 개국 시기 등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이렇듯 단군 신화의 서술은 단순하지만, 서술 방식은 그렇지가 않다. <알에서 나다>라는 제목 아래 단군 신화가 수록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인의 선조들은 대다수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져 내려온다”는 언급, “단군은 야수의 알에서 났다고 하는 내력을 들으니”라는 언급은 단군이 난생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서술에 의거해 단군 신화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동굴에 살고 있던 야수가 알을 낳았고, 그 알에서 단군이 태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단군 신화에 이어 박혁거세의 난생과 석탈해의 난생이 연이어 서술된다. 이는 우스다 잔운이 의도를 가지고 단군과 신라 시조의 난생을 배치하며, 단군 역시 난생임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군 신화가 전승된 과정을 보면 난생 화소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데 우스다 잔운은 어떻게 이와 같은 서술을 할 수 있었을까. 선행 연구에서는 『조선총화』의 특징으로 개별 설화에 복합 모티프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단군,

50) 우스다 잔운, 이시준 역, 『(완역)암흑의조선』, 박문사, 2016, 142~143면.

박혁거세, 탈해의 탄생담이 동시에 서술되어 있는 것이 우스다의 착오라고 지적하였다.<sup>51)</sup> 필자 역시 우스다 잔운이 조선의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 『조선총화』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단군 신화와 주몽 신화를 혼동하였고, 이 흔적이 단군 신화에 그대로 적힌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단군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모티프는 이전에도 전승된 적이 없고 이 기록 이후에도 전승되지 않으며, 당시 단군 신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일본인 학자들 역시 단군의 난생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아무래도 『조선사』(1892)를 저술했던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가 1893년에 주몽, 박혁거세, 석탈해, 김수로가 난생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한 후 다른 일본인 학자들도 난생과 관련된 연구를 제출하였기 때문에,<sup>52)</sup> 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던 우스다가 단군 역시 난생으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한다.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아동화담』은 『동국통감』에 수록된 단군 신화의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으며, 『전설의 조선』은 단군과 주몽을 헛갈리면서도 조선의 시조로 단군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전설의 조선』이 출판된 1908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하야시의 『조선사』(1892), 나카 미치요[那珂通世]의 <조선고사고(朝鮮古史考)>(1894),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庫吉]의 <단군고(檀君考)>(1894) 등이 발표된 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것을 볼 수 있다. 하야시는 『조선사』에서 단군 신화의 내용이 황당하고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단군 신화를 수록하고 있지만,<sup>53)</sup> 나카 미치요나 시라토리 쿠라키치의 경우 단군 신화가 불교의 전파 이후에 생성된 일연의 창작이라고 주장한다.<sup>54)</sup>

그런데도 『전설의 조선』은 위와 같은 단군 부정론을 따로 기술하거나 반영하지 않고, 단군과 박혁거세, 석탈해의 신화를 함께 다루고 있다. 이는 《경성일보》의 기자였던 우스다 잔운이 해당 내용을 몰랐거나 혹은 알았어도 반영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두 상황 모두 단군부

51) 김광식, 「우스다 잔운과 한국설화집 『조선총화』에 대한 연구」, 『동화와 번역』 20,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연구소, 2010, 27~28면.

52) 김광식, 앞의 논문, 2011, 170면.

53) 林泰輔, 『조선사』 권지일, 제2편 태고사, 제1장, 19면.

54) 나카 미치요와 시라토리 쿠라키치의 논의는 신종원 편, 조경철 역,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에서 번역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정론의 영향력이 우스다 잔운에게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는 당시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에게 단군 부정론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방증이 되며 학자들의 논의가 아직 크게 확대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보여준다. 즉, 이 시기까지는 일본인들에게 조선의 시조로서 단군의 지위가 확고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군을 조선의 시조로서 소개하는 것이 가능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일선동조론이나 단군부정론이 언급된 설화집은 1920년부터 산출되는데, 이는 주지하듯 단군론이 학술적인 배경보다는 당시 제국 일본의 식민지 조선 통치의 맥락과 결부되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 IV. 서사의 각색을 통한 곶의 변신과 결연담의 강조

1920년대부터 산출된 일본어 조선 설화집에서는 단군 신화의 서술 태도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단군 신화의 서사를 각색한 경우와 단군 신화의 서사를 그대로 반영하되, 이를 해석하기 위한 단군론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단군 신화를 수용하여 이를 흥미 위주로 각색한 텍스트들이 시대별로 꾸준히 전승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와 다마키[三輪環]의 『전설의 조선』(1919)은 일본의 유명한 출판사에서 발행되고 발간과 동시에 일본의 주요 신문에 소개되면서<sup>55)</sup> 후대 조선 설화집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전설의 조선』은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의 『조선동화집』(1926)에 영향을 주었는데, 나카무라의 『조선동화집』은 이후 출판된 『조선에서의 산림과 전설』(1926), 『일본향토이야기』(1934), 신래현의 『조선의 신화와 전설』(1943)에 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전설의 조선』에 수록된 단군 신화부터 차례대로 서사 단락의 전개와 서술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설의 조선』에 수록된 단군 신화의 서사 단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5) 김광식, 앞의 책, 2018, 113면.

- ① 환웅이 인간세계를 다스리고 싶다고 하자 환인이 천부인 3개를 주며 환웅을 보냈다.
- ② 환웅은 무리 3천명과 함께 태백산 꼭대기 단수 아래로 내려갔다.
- ③ 환웅이 조선의 군주가 되어 풍백, 우사, 운사를 임명하고 인간사의 360여 일을 맡아 정치를 하였다.
- ④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와서 사람이 되길 간청했다.
- ⑤ 환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 ⑥ 호랑이는 이 방법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곰은 지켜서 여자로 변했다.
- ⑦ 곰이 인간의 아들을 낳고 싶다고 환웅에게 기원했다.
- ⑧ 환웅이 인간으로 변해 곰과 결연을 맺었다.
- ⑨ 환웅과 곰이 단군을 낳았다.
- ⑩ 사람들이 단군을 추대하여 군주로 삼았다.
- ⑪ 단군이 당요 무진 25년에 왕검성을 도읍으로 하고 나라를 조선이라 칭했다.
- ⑫ 주 무왕 기묘년에 기자가 조선에 오자 단군이 아사달산으로 숨어 신이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1808세였다.

서사 단락을 살펴보면,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서사의 흐름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되, ⑩에서 보듯 단군이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임금이 되었다는 화소가 추가된 점이 주목된다. 단군이 국민들의 추대를 받아 군주가 되었다는 화소는 조선 초기 이후 꾸준히 전승되던 화소였기 때문에 미와는 기존에 조선에서 전승되던 단군 신화의 서사를 충실히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서사 단락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단군이 내려왔다고 하는 태백산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비정하는 부분은 서두에 제시하는 것과 독자들이 해당 내용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내용을 각색한 점이다.

㉞ 평안북도 영변 동쪽 10리에 태백산이라 하는 산이 있다. 그 최고 높음 봉우리는 향로봉이라 하고, 1371m라고 한다. 이 산에 향목이 많고, 또 선인과 불타의 유적이 있으므로 묘향산이라고도 칭한다. 조선의 시조 단군이 있었다고 말하는 자리는, 지금 보현사에서 동쪽으로 약 3리쯤 떨어진 남쪽 기슭에, 높이 4장, 남북 5장, 동서 3장의 큰 바위의 틈이 하나의 동굴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그 유

적이다.

㉔ 이때 이 산에는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이 두 마리는 함께 환웅을 찾아와서 “부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환웅은 “사람이 되려면 어려운 일을 해야 한다. 그것보다 곰은 곰, 호랑이는 호랑이로 있는 편이 낫다.”라고 가르쳐주었으나, 두 마리는 모두 승낙하지 않았다. “그렇다면”라고 말하고 “너희들은 신령한 마늘 한 줌과 쑥 이십 근을 줄 테니, 이것을 먹고 백일 간 햇빛을 보지 말아라.” 하고 가르쳤다.

두 마리는 크게 기뻐하였다. 그로부터 스스로 굴로 돌아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고행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호랑이는 중도에 그쳐서 끝이났고, 곰은 일념으로 굳게 지켜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그러다 21일째에는 대원 성취해 순조롭게 여자로 변했다.<sup>56)</sup>

인용문 ㉔를 보면, 단순히 태백산이 묘향산으로 비정되는 데 그치지 않고, 묘향산의 위치와 특징, 실제 단군 신화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굴의 위치와 모양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묘향산이 태백산이라는 인식은 『삼국유사』에서 확인되며, 묘향산에 단군의 초거지(初居地)로서 단군굴이 있었다는 기록도 조선 초부터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묘향산에 얽힌 단군 신화의 내용은 고려 시대부터 전승되고 있었다.<sup>57)</sup> 그리고 미와는 1915년부터 평양고등보통학교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묘향산의 단군 관련 전승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미와는 기존에 전승되고 있던 묘향산의 단군 전승을 단군 신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으로 간주하고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사실은 『전설의 조선』이 출간된 1919년은 이미 식민지 조선에서 대중교의 단군 담론이 확산되고 난 이후라는 점이다. 태백산을 백두산으로 비정하려는 인식이 신문이나 역사 서술을 통해 근대계몽기에 급격하게 확산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sup>58)</sup> 단군 신화의 전승지로 묘향산을 강조하는 것은 1910년대에 급격히 확산되던 백두산 중심의 단군 신화의 전승과 구별되는 것으로 일본인 학자들이 강조했던 단군론

56) 미와 다마키, 『(식민지시기 일본어 조선 설화집 자료총서 7) 전설의 조선』, 제이앤씨, 2013, 87~89면.

57) 김성환, 『고려시대의 단군전승과 인식』, 경인문화사, 2002, 99~128면.

58) 박성혜, 앞의 논문, 133~140면.

과 호응한다는 점을<sup>59)</sup>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용문 ㉔의 경우 환웅과 곰, 호랑이의 대화가 서술된다.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금기의 어려움 때문에 환웅은 그들을 만류하며, 호랑이의 실패 과정과 곰의 성공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곰과 호랑이의 차이가 대비된다. 이렇듯 전체적인 서사의 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환웅과 곰, 호랑이의 대화가 삽입되어 독자에게 읽는 재미를 제공하는데, 이는 단군 신화가 『전설의 조선』에 수록된 다른 설화들에 비해 단순하여서 일본인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부분은 후대의 설화집 편찬자들에게도 인상이 깊었던지, 후대로 갈수록 곰과 호랑이의 기원과 변신 과정이 확장된다.

나카무라 료헤이가 편찬한 『조선동화집』(1926)과 『지나, 조선, 대만신화전설집』(1929)에 수록된 단군 신화는 내용이 동일하므로 『조선동화집』을 중심으로 단군 신화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조선동화집』의 단군 신화는 『전설의 조선』에 수록된 단군 신화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먼저 서사 단락의 경우, 구체적으로 단락 ⑩의 추대 화소가 없고, 단락 ⑪에서 당요 무진 25년이 빠지고, 왕검성 대신 평양에 도읍을 정했다고 적고 있다. 단락 ⑫에서 단군의 나이가 1808년에서 1908년으로 바뀐 것만 다를 뿐 『전설의 조선』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곰과 호랑이의 금기 수행이 서술된 부분도 등장 인물들의 대화로 전개된다는 점도 동일하다.

그러나 『조선동화집』은 『전설의 조선』에 비해 각색한 부분이 늘어난다. 먼저 본격적인 서사가 시작되기 전 한반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전체 분량의 1/6에 해당한다.

옛날 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동해와 황해 사이에 위치한 조선반도에는 누구 하나 살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풀과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지고 언덕과 들판에는 아름다운 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서쪽으로 잔잔한 강이 흐르고 작은 새들은 실로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학과 해오라기가 조용히 날개를 펼치고 하늘 높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수많은 가을 까마귀의 무리가 기러기나 오리의 행렬과 함께 북쪽에서 찾아왔

59) 위의 논문, 70~72면.

습니다. 아름다운 바람이 불어오면 많은 나무들까지도 입을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본래 인간이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도 없고 왕도 없었습니다.<sup>60)</sup>

위 인용문에서 나카무라는 한반도를 수풀이 우거지고 새들이 지저귀며 산, 강, 바람이 조화를 이루는 태곳적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으로 형상화한다. 설화의 배경으로 조선의 자연이 지닌 아름다움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조선동화집』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나카무라가 개인적으로 이상적인 인류애를 추구했던 경험과 당시 조선에서 과거 일본의 이미지를 찾으려고 하는 일본인들의 사고 체계가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다.<sup>61)</sup>

세 번째로 살펴볼 『조선에서의 산림과 전설』(1926)은 책의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산림과 관련된 전설을 공모한 글이다. 단군 신화는 『경상북도 대구부 동운정(東雲町) 익명씨』가 공모한 것이라고 적혀있다. 서사 단락 역시 『전설의 조선』과 거의 비슷하다. 단락 ①부터 ⑨까지의 내용이 동일하며 여기에서 서사가 마무리된다. 즉 곰과 환웅의 결연으로 ‘반도의 시조’ 단군을 낳았다는 것까지만 서술되고 고조선의 개국 시기, 도읍의 위치나 단군의 수명과 같은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앞선 두 텍스트에서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의 서사 단락을 조정하지 않고 환웅과 곰의 결연담을 대화를 통해 강조했다면, 여기에서는 단군과 관련된 서사 단락을 제거함으로써 환웅과 곰의 결연담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환웅을 부정적으로 형상화한다. 구체적으로 『조선동화집』에서는 한반도가 아름다워서 환웅이 인간세계로 내려가기를 원했다고 서술하는 데 반해, 여기에서 환웅은 ‘야심가’로 불리며 모반의 기운을 누르기 어려워서 하계를 노리고 있었다고 서술된다.

다만 『전설의 조선』은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는 부분이 많다면, 『조선에서의 산림과 전설』은 서사의 전개는 동일하지만 해당 내용을 단순하게 요약하여 설명하며,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는 부분도 없다. 이와 같은 차이는 저자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앞의 두

60) 나카무라 료헤이, 김영주·이시준 역, 『완역 나카무라 료헤이의 조선동화집』, 박문사, 2016, 355면.

61) 김영남, 『『조선동화집』에 나타난 ‘미’의 ‘기술’에 관한 고찰』, 『민속학연구』 16, 국립민속박물관, 2005, 68면.

텍스트들은 조선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편찬한 것이라면, 이 텍스트는 앞선 텍스트들의 영향을 받은 독자가 익명으로 단군 신화의 내용만 간단하게 적어서 공모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본향토이야기』(1934)에 수록된 단군 신화를 살펴보자. 이 책에서 단군 신화는 <단군의 이야기(檀君의話)>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굳이 ‘신화’나 ‘전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모두를 범박하게 포함할 수 있는 이야기(話)를 사용하고 있다. 서사 단락은 『조선동화집』과 동일하지만, 배경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부분이 없고 각색을 한 부분이 많이 사라져 분량이 줄어들었다. 이 책의 목적이 이야기를 통해 일본정신을 고취하고, 이를 향토교육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쿠야마 센조[奥山仙三]가 기존에 유통되던 『조선동화집』과 같은 설화집을 참고는 하되, 해당 내용은 매우 간략하게 서술하여 내용의 전달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신래현의 『조선의 신화와 전설』(1943)과 함께 정인섭의 『온돌야화』(1927)를 살펴보자. 『조선의 신화와 전설』은 앞서 다룬 단군 신화에 비해 분량이 훨씬 많다. 이는 『조선의 신화와 전설』이 『전설의 조선』과 『조선동화집』의 단군 신화의 내용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앞선 시기 정인섭의 『온돌야화』에 수록된 단군 신화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정인섭의 『온돌야화』를 살펴본 후, 신래현의 『조선의 신화와 전설』을 논의하고자 한다.

조선 본연의 생활상을 드러내는 설화를 수록하겠다는 정인섭이 『온돌야화』에서 첫 번째로 배치한 설화가 <단군>이다. 여기에 수록된 단군 신화는 13개의 텍스트 중 가장 각색이 많이 된 것이다. 제목은 <단군>이지만 텍스트의 주 관심사는 곰과 호랑이의 변화 과정과 환웅과 곰의 결연에 있다. 또한 환인, 환웅, 호랑이, 곰과 같은 주체들은 동일하지만, 그 서사 단락의 전개는 기존의 단군 신화와 크게 다르다. 정인섭은 서문에서 창작적 개작 없이 본연의 순박한 생활상이 드러나는 설화만 뽑았다고 했으나, 단군 신화에는 그의 창작적 개입이 엿보인다. 단군 신화의 서사 단락은 다음과 같다.

① 백두산 남부에 곰과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 ②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 싶어서 유일 절대신인 하늘의 제왕 하나님의 처소에 가고자 했다.
- ③ 곰과 호랑이가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알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였다.
- ④ 갑자기 어디에서인가 신의 목소리가 들리고 곰과 호랑이에게 인간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 ⑤ 호랑이는 이 방법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곰은 이를 지켜서 여자로 변한다.
- ⑥ 하나님의 왕자 한웅(韓熊)이 인간세계를 다스리고 싶다고 하자 하나님은 한웅을 보냈다.
- ⑦ 백두산의 용담에서 용이 강렬한 숨으로 구름을 만들어 한웅이 내려올 통로를 만들었다.
- ⑧ 한웅은 색깔이 변하는 구름길을 따라 백두산 위에 내려왔다.
- ⑨ 한웅은 여자로 변한 곰을 보고 아름다움에 기뻐하며 결혼을 맺었다.
- ⑩ 한웅과 곰이 아들을 낳았다.
- ⑪ 원시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백두산 정상의 구름 속에서 천인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았다.
- ⑫ 사람들은 이를 보고 궁금해서 백두산에 갔고, 단목 아래에서 하얀 의복을 입은 천인을 만났다.
- ⑬ 한웅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인간들을 통치하러 왔다고 말하자 사람들이 어명을 따랐다.
- ⑭ 한웅은 온돌, 법률, 규칙 등을 정하고 가르쳤다.
- ⑮ 사람들은 한웅의 덕과 지혜에 감복하며 한웅을 단나무 아래에서 만났기 때문에 단군이라 불렀다.

서사 단락을 살펴보면 『삼국유사』의 전승과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단락 ②에서 환인 대신 유일절대신 하나님이, 단락 ⑥에서 환웅 대신 한웅이 등장한다. 또한 단락 ⑩의 한웅과 웅녀의 결혼이 건국주의 탄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단락 ⑮에서 보듯 단군은 환웅의 다른 이름이며, 한웅의 아들은 탄생 이후 어떠한 행위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단락 ⑥과 ⑬에서 보듯 한웅은 인간세계를 다스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조선’의 건국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서사 단락의 변화는 『은돌야화』의 ‘단군’이 더 이상 건국 신화

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전설의 조선』이나 『조선동화집』에 수록된 단군 신화의 경우 『삼국유사』에 수록된 단군 신화와 비교했을 때 세부적인 모티프의 변화는 있었을지라도 환인-환웅과 곰-단군으로 이어지는 계보 속에서 단군이 조선을 건국하는 파견자-중개자-실현자의 기능이 유지된다.<sup>62)</sup> 그러나 『온돌야화』에서는 하나님-한웅(단군)-한웅의 아들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계보는 이어지지만, 그 기능상 하나님이 파견자이고 한웅이 실현자가 되어 중개자도 없을뿐더러, 무엇보다도 한웅은 인간들을 다스렸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건국’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단군>은 어떤 이야기인가. 서사 단락을 살펴보면 한웅의 태백산 강림보다 곰과 호랑이의 기원이 먼저 등장한다. 또한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기 위해 굴 속에서 보낸 시간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호랑이의 실패 과정과 곰의 성공 과정을 대비시키고 있다. 또한 한웅이 백두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여자로 변한 곰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서술하고, 뒤이어 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사내아이가 태어났다고 적고 있다. 즉 곰의 변신담 이후 서사의 흐름은 한웅과 곰의 결연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결연의 결과로서 아이가 탄생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온돌야화』 역시 곰의 변신 과정과 곰과 한웅의 결연이 주된 내용이다. 이 외에도 조선의 산맥을 용의 척추뼈로 묘사하고, 한웅이 구름길을 따라 내려오는 장면이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된 것은 『온돌야화』만의 특징이다.

신래현은 정인섭의 『온돌야화』와 기존에 출판된 『전설의 조선』, 『조선동화집』과 같은 설화집을 참고하여 『조선의 신화와 전설』에 단군 신화를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서사의 흐름은 『조선동화집』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환인이 있는 천상을 형상화하거나, 조선반도를 절경으로 묘사하는 것, 한웅이 태백산에 내려와서 마주한 경치를 묘사하는 것은 정인섭의 『온돌야화』에서 장면을 형상화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㉞ 그리고 다음날 아침,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해지자마자 군중들이 뜰로 뛰쳐나가 공중을 바라보니, 신성한 태산 부근 일체가 구름옷에 싸여있고, 그 봉우리

62)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2003, 329면.

로부터 공중에는 똑같이 흰 구름의 봉우리가 겹쳐져 무한히 저편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잠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으니, 동쪽 하늘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며 흰 구름은 점점 분홍빛으로 물들더니, 이윽고 붉은 빛으로 변하고, 다음으로 노란색을 나타내며, 고귀한 꿈처럼 맑은 아침의 선명함을 나타냈다.<sup>63)</sup>

㉔ 태백산 정상, 단목 아래로 내려온 환웅은 사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쪽으로는 멀리 동해를 앞에 두고, 남쪽으로는 길게 반도가 뻗어있고, 서쪽으로는 넓은 평원을 가로질러, 그 너머로 황해 바다를 가득히 채우고, 북쪽으로는 대륙으로 이어져 산은 아름답고 물은 맑아 진실로 지리의 오묘함을 가진 반도였습니다. 산에 수목이 수령도 모를 정도로 무성하고, 들에는 가지각색의 들꽃이 어우러져 피어나고, 이름 모를 새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골짜기에는 맑은 시냇물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흘렀습니다.<sup>64)</sup>

인용문 ㉓는 『온돌야화』의 단락 ⑧의 일부로, 알록달록 색깔이 변하는 구름이 형성된 장소와 구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는 기존 단군 신화에서 볼 수 없는, 즉 정인섭이 개작한 부분으로 서사 단락의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산봉우리와 구름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아침의 선명함(조선)’을 강조한다.

인용문 ㉔는 신래현이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온 단락을 설명하기 위해 묘사한 장면이다. 태백산 꼭대기에 있던 환웅의 눈에 비친 조선의 지리적 위치와 풍광을 묘사한 것으로, 이 장면 역시 서사 단락의 전개에서 중요한 역

63) 鄭寅燮, 『濶夜突話』, 日本書院, 1927, 4면. “そして翌朝, 東の空が白ばむが, 早いか, 群衆は庭に跳び出て、空中を眺めると、神神しい泰山の附近一體は、雲の衣に包まれ、その峯からの空中には、同じく白し雲の峯が重りあつて無限の彼方に連つてゐるのを發見した。そして暫時の間、身動きもせず仰していると、東の空から太陽が昇にはじめたので、白い雲は段段と桃色に彩られ、やがて紅色に變じ、それから黄色い色調を現はして、貴い夢の様な清い朝の鮮かさを呈するのであつた。”

64) 申來鉉, 『朝鮮の神話と傳説』, 一杉書店, 1943, 211면. “太白山の頂、一本の檀木の下に降り立つた桓雄は四圍を見下ろしました。東には遙か東海を控へ、南は長く半島が延び、西は廣い平原を横たへて、その彼方に黃海の海を湛へ、北は大陸に續いて山は美はしく水は清く、誠に地理の妙を得た半島でありました。山に樹樹が樹齡も知らぬ程に茂り合ひ、野には色とりぐの野花が咲き亂れ、名も知れぬ鳥は歌を唄っていました。谷間には清ふあかなせせらぎが東に西に流れていました。”

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은 순진무구한 자연, 태곳적 인간의 손이 타지 않은 순박한 곳으로 형상화된다. 이렇듯 서사 단락의 직접적인 전개와 무관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장면 묘사를 통해 이들이 형상화하고자 하는 조선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이렇게 단순히 ‘자연환경’에 제한되는 조선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당시 문명이라는 이름 아래 재단되는 식민지 조선을 단순히 ‘암흑’이나 ‘미개’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낫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이 ‘미개’하지 않고 ‘순박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도 왜곡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시각은 제국 일본에 의해 강제된 문명이라는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단군 신화에 형상화된 조선의 아름다움은 식민지 조선의 처참한 현실과 유리되고, 현실을 가리기 때문이다. 결국 단군 신화에 형상화된 조선의 아름다움은 당시 일본인들이 소비했던 조선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듯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를 각색하여 수록한 일본어 조선 설화집의 경우 단군 ‘신화’의 초점이 단군의 고조선 건국에서 곰의 변신담이나 곰과 환웅의 결연담으로 옮겨가는 것이 확인된다. 기존에 조선에서 전승되었던 단군 신화의 경우 곰의 변신담이나 곰과 환웅의 결연은 단군의 신이한 탄생의 근거로 단군의 고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데 활용되었다. 그러나 일본어 조선 설화집의 곰과 환웅의 결연은 그 자체로 독자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될 뿐이다. 환웅과 곰의 결연의 결과로 단군이 태어나거나 단군의 건국 자체가 언급되지 않는 등의 서사적 각색은 단군의 고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단군의 신성성도 약화시키며 나아가 고조선의 역사를 희미하게 만든다. 이는 근대계몽기에 한국인들이 생성하고 확장시켰던 단군 신화가 역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곰이 변한 웅녀를 서사를 없애고, 건국주의 신성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군의 치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사가 확장된 것과<sup>65)</sup> 상반된다. 이와 같은 서사적 각색은 자연스럽게 단군 ‘신화’를 흥미 위주의 ‘변신담’이나 ‘결연담’으로 바꾸어 그 신화적 성격을 약화시킨다.

65) 박성혜, 위의 논문, 43~169면.

## V. 자료의 나열을 통한 일선동조론과 단군부정론의 제시

이외에도 단군 신화의 내용을 짧게 기술하고, 단군 신화에 대한 평가를 함께 적은 유형이 있다. 이는 일본과 조선이 ‘동원’이나 ‘동조’였다는 것과 단군 신화 자체가 일연이 만든 허구의 이야기라는 두 방향으로 전개된다. 먼저 일선동조론을 주장하는 것은 야마사키 겐타로[崎源太郎]의 『조선의 기담과 전설』(1920)과 마에노 후쿠라[前野福藏]의 『조선의 문화와 미신』(1930)이다.

『조선의 기담과 전설』은 『동국통감』과 『삼국유사』에 수록된 단군 신화를 그 출처를 밝힌 채, 원문 그대로 서술한다. 그 다음 구체적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이는 『동국통감』과 『삼국유사』를 원문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독자들이 해당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어로 써 준 것이다.

문제는 이 다음에 배치된 다양한 자료들의 성격이다. 야마사키는 단군 신화를 수록한 후 <소위 스사노오노미코토설>, <한신(韓神)과 신라신>, <우리 궁중제사의 한신>, <조정 의 범서(梵書)>라는 제목으로 일본 자료를 나열한다. 먼저 <소위 스사노오노미코토설>에서는반 고케이[伴蒿蹊]의 『한전경필(閑田耕筆)』의 주장을 끌어와서 단군이 스사노오노미코토라는 주장을 제시한다. 그리고 연이어 니시가와 겐[西川權]의 『일한상고사의 이면』을 끌어와서 단군이 스사노오노미코토의 아들 이타케루노미코토[五十猛尊]일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배치한다.

이때 해당 내용에 대해 서술하는 태도가 특이하다. 야마사키 겐타로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단군 왕통이 일천몇백 년 기자조선이 구백 년쯤 이어졌다고 하므로, 이것을 모국의 연대(학자의 설은 별도로 하고)와 대조해보면, 겨우 이자나기 시대와 맞으니까 조선의 전설은 전설로서 근대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완전 엉터리같기도 하지만, 그런 천착은 학자 사가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단순히 신화의 존재 그대로를 기술하는 데 그친다.”<sup>66)</sup>고 서술한다. 이를 통해 당시 야마사키가 단군 신화에 대한 일본학계의 인식을 알고는 있으나, 자신이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를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정확한 서술을 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6) 야마사키 겐타로, 이시준·장경남·김광식 역, 『조선의 기담과 전설』, 제이앤씨, 2014, 31면.

그는 단군을 스사노오노미코토나 이타케루노미코토 중 한 인물로 정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이 서술 이후에 일본과 조선의 친연성을 강조할 수 있는 고대의 문헌 자료를 연이어 배치한다. 이타케루를 한신(韓神) 혹은 신라신(新羅神)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고사기』의 기록 일부를 그대로 적되 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또한 <궁중 제신의 한신>이라는 제목 아래 “덴지(天智)천황 2년, 백제멸망과 함께 우리 궁중에 모셔진 신이 있다.”고 하며 『대종비부약기(太宗秘府略記) = 이세신궁전설』, 『내시어신악식(內侍御神樂式)』에 수록된 기록을 별다른 설명 없이 나열한다. 그리고 <조정의 범서>에서 『신황정통기(神皇正統記)』를 끌어와 옛날 일본은 삼한과 동종(同種)이라는 것이 있었으나 그 서적이 불태워졌다는 기록을 적고 있다. 이렇듯 야마사키는 본격적인 분석은 하지 않으면서, 일본과 조선의 동원, 동종을 유추할 수 있는 일본의 사료들을 끌어와서 나열한다.

마에노 후쿠리[前野福藏]의 『조선의 문화와 미신』(1930)도 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목차를 살펴보면 ‘문화’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조선의 역사를 서술한다. 제 1편 태고에 해당하는 고조선은 북부조선, 남부조선이라는 두 절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북부조선에는 단군 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이 순서대로 나열되었으며, 남부조선에는 마한, 진한, 변한이 나열된다.

단군 신화의 서술을 살펴보면, 『동국통감』과 『삼국유사』에 수록된 단군 신화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그 후 단군이 스사노오라는 설, 단군이 이타케루라는 설을 차례대로 서술한다. 내용의 흐름이나 주장은 야마사키의 『조선의 기담과 전설』(1920)과 똑같다. 다만 야마사키는 사료들을 배치하는 것으로만 자신의 주장을 대신하고 있다면, 마에노는 이를 “내지의 전설”에 근거하여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오에 얽힌 이야기를 자세하게 서술한 후, 스사노오가 다스렸다는 해원(海原)을 조선으로 보고, 단군을 스사노오라고 주장한다.<sup>67)</sup> 또한 스사노오가 아들 이타케루를 데리고 신라 소시모리[曾尸茂梨]에 있다가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갔다는 『일본서기』의 내용을 들면서, 소시모리가 조선어 소머리(牛頭)라는 뜻이라고 적고, 이를 다시 스사노오가 ‘우두천왕(牛頭天王)으로 불렀던 것과 연관시키고 있다.<sup>68)</sup> 이처럼 마에노

67) 前野福藏, 『朝鮮の文化と迷信』, 柳生堂, 1930, 2면.

역시 아마사키와 동일한 주장을 하되,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아마사키나 마에노가 주장했던 내용이 위의 책에서 처음 언급된 것은 아니다. 이미 에도시대에 『동국통감』의 간행을 맡아 서문을 쓴 하야시 가호는 단군이 조선을 개국했다고 서술하면서 동시에 스사노오를 삼한의 일조(一祖)로 보고 있었고, 도 데이칸[藤貞幹] 역시 『충구발(衝口發)』(1781)에서 『일본서기』와 『동국통감』을 비교하여 차차웅이 스사노오라고 주장한 바 있다.<sup>69)</sup> 이러한 접근은 당시 일본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신화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간주하고 주변국들의 기록에서 일본사의 흔적을 찾으려는 시도였다.

그런데 일본이 강화도를 포격하고 육군참모본부가 광개토왕비를 조사하는 등, 제국주의적 행보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로서 일선동조론이 다시 부각되었다. 제국대학의 국사과 교수였던 시게노 야스쓰구[重野安綱],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 호시노 히사시[星野恒]는 ‘실증적 역사연구’를 표방하며 『고본국사안(稿本國史眼)』에서 ‘해원’을 한국(韓國)으로 비정하고, 일선동조론을 주장하는 다양한 논문들을 제출하였다.<sup>70)</sup> 그리고 이들을 비롯한 일본인 학자들의 일선동조론은 근대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재생산되었다. 앞서 2장에서 아마사키가 3·1운동 이후 활발하게 재생산되었던 일선동조론에 동의하며 『조선의 기담과 전설』을 편찬한 것은 이미 언급하였으며, 이 흐름이 『조선의 문화와 미신』까지 이어졌다.

이 외에도 단군 신화의 내용이 허구라는 내용을 담은 단군 신화도 확인된다.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잡지 『조선』에 수록된 오다 간치로의 『온돌한화』(1920.12)와 나카무라 료헤이가 조선편을 편찬했던 『지나, 조선, 대만 신화전설집』(1929)에 수록된 <조선신화전설개관>, 조선연구사에서 편찬한 『약진의 서선』(194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돌한화』에서 단군 신화는 <환웅 꿈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다>라는 제

68) 위의 책, 3면.

69) 사쿠라자와 아이, 『근대 일본에서의 단군론의 성립』, 『인문학연구』 31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87면.

70) 심희찬, 앞의 논문, 188~190면.

목의 글에 수록되어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여기에 수록된 단군 신화는 환웅과 곰의 결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서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단군 신화를 일본어로 풀어서 전제한 후, 단군 신화는 조선의 고전설을 바탕으로 조립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장의 근거는 세 가지로, 환웅이 서자로 설정된 것은 적자는 신의 지위를 이어가야 하므로 서자가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고 전개하기 용이하다는 점, 곰과 호랑이는 조선에서 친숙한 동물이라서 관련된 지명과 이야기가 많다는 점, 쑥과 마늘은 조선인이 소중히 여기고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라는 것이다. 사실 이 세 가지 근거 모두 단군 신화가 형성 당시의 전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타당하지 않다.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단군 신화를 조립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각 근거들은 주장과 직접적인 연관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2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는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잡지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타당성과는 상관없이 잡지에 수록되어 일본인들이나 일본어를 읽을 줄 아는 한국인들에게 믿을 만한 자료로 인식되어 읽혔을 것이다.

두 번째로 나카무라 료헤이의 <조선신화전설개관>을 들 수 있다. 나카무라 료헤이는 이미 『조선동화집』에 단군 신화를 수록하고, 이를 『지나, 조선, 대만신화전설집』에 그대로 수록하였다. 그러나 단군 신화를 다룬 본문에서는 단군 신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지 않았고, <조선신화전설개관>에서 자신이 수록한 설화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며 단군 신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한다. 여기에서 그는 “요컨대 조선 시조 단군의 건국신화가 선도(仙道)에 의한 신선설에 의해 생겨난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경향으로, 따라서 조선에서 신화전설의 대부분은 이러한 대륙의 사상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sup>71)</sup>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삼국유사』 『고조선』 조에서 『고기』를 인용하여 서술한 단군 신화는 일연의 저술 전에 다른 기록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곰과 호랑이의 활약도 중국의 선가에서 천지발생의 근본이 용과 호랑이에서 나왔다고 믿는 신앙을 끌어다가 표현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서술은 『조선동화집』의 서문에서 보이는 그의 태도와는 상반된다. 이는 그가 『조선동화집』에 수록된 단군 신화를 다시 『지나, 조선,

71) 松村武雄 編, 『(神話傳説大系)支那・朝鮮・臺灣 神話と傳説』(중판), 大京堂, 1935, 13면.

대만 신화전설집』으로 재수록하고 조선의 신화와 전설을 개관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단군 부정론을 수용하여 서술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연구사에서 편찬한 『약진의 서선』(1940)에서 단군 신화는 <고조선과 평안남도>라는 제목 아래 적혀 있다. 여기에서 단군 조선은 믿을 만한 역사가 아니고, 600년 전에 지어진 평양의 연기 설화라고 주장한다. 뒤이어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내용을 전채하고 단군이라는 단어를 언어학적으로 접근한다. 구체적으로 전단목의 영을 신인화한 것이 단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묘향산에 옛날부터 단목이 많았고, 조선에는 오래된 나무와 큰 나무를 신령하게 숭배하는 풍습이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지나, 조선, 대만신화전설집』과 『약진의 서선』을 살펴보면 둘 다 단군 신화가 일연의 창작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단군 부정론 역시 기존에 있던 주장을 단군 신화와 함께 정리하여 수록한 것이다. 이미 1894년부터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庫吉], 나카 미치요[那珂通世]와 같은 일본인 학자들이 일연이 단군 신화를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으며, 그 근거로 일연의 기록 외에 다른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묘향산에 향목이 많고 이를 단목이라고 지칭했던 점 등이 언급되었다.<sup>72)</sup>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일선동조론이나 단군부정론을 주장하는 경우 단군 신화의 서사 단락을 요약하거나 이를 개작하는 데 힘을 쓰지 않는다. 대신 『동국통감』이나 『삼국유사』의 전문을 그대로 수록하여 단군 신화를 그대로 독자에게 보여주고, 이 기록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과정에서 일본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일선동조론이나 단군 부정론의 근거들을 적당히 정리해서 전달한다. 특히 이와 같은 설화집은 1920년대 이후에 꾸준히 재생산되는데, 이는 당시 정치적 배경 아래 일선동조론이나 단군 부정론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그 여파가 일본어 조선 설화집을 편찬한 편찬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설화집은 일본인들에게 읽히며 식민지 조선의 단군 신화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였다.

72) 시라토리 쿠라키치, 「단군고」,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13면.

## VI. 맺음말

지금까지 근대에 출판된 일본어 조선 설화집에 수록된 단군 신화의 현황을 확인하고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본고의 논의 결과 단군 신화가 수록된 일본어 조선 설화집은 1891년부터 1943년까지 총 13종이 확인되며, 여기에 수록된 단군 신화는 단군론 기술 여부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단군론이 기술되지 않은 단군 신화는 『동국통감』에 수록된 단군 신화나 『삼국유사』의 서사 단락을 간략하게 기술한 것과 『삼국유사』의 서사 단락을 수용하면서 각색한 것으로 구분된다. 『조선아동화담』(1891)에 수록된 단군 신화를 통해 이 시기의 일본인들이 『동국통감』의 이해에서 비롯된 단군 신화를 바탕으로 단군을 한반도의 역사적 기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암흑의 조선』(1908)은 주몽과 단군을 혼동하는 경우도 보여준다. 그러나 192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흐름은 점차 바뀐다.

두 번째로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를 각색한 『전설의 조선』(1919), 『조선동화집』(1926), 『조선에서의 산림과 전설』(1926), 『온돌야화』(1927), 『일본향토이야기』(1934), 『조선의 신화와 전설』(1943)의 경우 곰과 호랑이의 변신과 곰과 환웅의 결혼에 초점을 맞춰 서사를 각색하였으며 이 흐름은 1919년부터 1943년 설화집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이는 단군 신화의 향유자들이 단군이 탄생이나 고조선의 건국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단군 신화의 신성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곰의 변신담과 곰과 환웅의 결혼담으로만 소비된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단군론이 기술된 신화는 일선동조론을 강조한 것과 단군 신화가 일연에 의해 날조되었다는 주장으로 구분된다. 이 두 경우 모두 『동국통감』이나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를 그대로 전제한 후, 자신들의 의견을 덧붙임해줄 자료들을 연이어 배치한다. 일선동조론을 주장하는 경우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본격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관련된 사료를 연이어 배치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단군 신화의 날조설을 주장하는 경우 당시 일본인 학자들의 근거를 답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근대 일본어 조선 설화집에 수록된 단군 신화의 양상은 크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어 전승되었으며, 이는 일본인들의 단군 신화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단군의 건국 과정이 약화되고 곰의 변신과 환웅과의  
결연담이 강조된 유형이 지속적으로 전승된 사례를 확인한 것은 중요한 성  
과이다. 이는 단군론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단군 신화가 흥미 위주  
의 이물변신담이나 이물교혼담으로 소비되면서 더 이상 신화로서 기능하지  
못한 사례를 보여주며, 이러한 서사의 각색이 일본어 조선 설화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단군 신화의 전승 양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근대 단군 신화의  
전승 양상의 새로운 방식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다양한  
자료들의 양상 분류라는 본고의 목적과 지면의 한계상 변화의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점은 추후 별고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神話傳説大系第14卷)支那・朝鮮・臺灣神話傳説集』(松村武雄 編, 近代社, 1929, 동경)
- 『暗黒なる朝鮮』(薄田斬雲(薄田貞敬), 日韓書房, 1908년 10월, 경성)
- 『躍進之西鮮』(朝鮮研究社 編, 朝鮮研究社, 경성, 1940년 10월)
- 『溫突夜話』(鄭寅燮, 日本書院, 1927년 3월, 동경)
- 『日本郷土物語』下(社會教育會 編, 大日本教化圖書株式會社, 1934년 12월, 동경)
- 『傳説の朝鮮』(三輪環, 博文館, 1919년 9월, 동경)
- 『朝鮮』(朝鮮總督府, 1920, 12월)
- 『朝鮮の奇談と傳説』(山崎源太郎, ウツボヤ書籍店, 1920년, 경성)
- 『朝鮮の神話と傳説』(申來鉉, 一杉書店, 1943년 9월, 동경)
- 『朝鮮の文化と迷信』(前野福藏, 柳生堂, 山口縣, 1930년 8월)
- 『朝鮮に於ける山林と傳説』(朝鮮山林會慶北支部編, 1926년 9월, 大邱)
- 『朝鮮童話集』(中村亮平 編, 富山房, 1926년 2월, 동경)
- 『朝鮮兒童畫談』(石井研堂(石井民司), 學齡館, 1891)

### 2. 단행본

- 권혁래, 『일제 강점기 설화 동화집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 旗田巍, 이기동 역, 『일본인의 한국관』, 일조각, 1981.
- 김광식·이시준, 『식민지 시기 일본어 조선 설화집 기초적 연구 1』, 제이앤씨, 2014.
- 김광식, 『근대 일본의 조선 구비문학연구』, 보고사, 2018.
- \_\_\_\_\_, 『식민지 조선과 근대설화』, 민속원, 2015.
- 김성환, 『고려시대의 단군전승과 인식』, 경인문화사, 2002.
- 나카무라 료헤이 저, 김영주·이시준 역, 『완역 나카무라 료헤이의 조선동화집』, 박문사, 2016.
- 나카무라 료헤이 저, 이시준 외 역, 『나카무라 료헤이의 조선동화집』, 제이앤씨, 2013.
- 동양학연구소 편, 『한국 문화 전통의 자료와 해석』, 단국대학교출판부, 2007.
- 미와 다마키 저, 이시준 외 역, 『전설의 조선』, 제이앤씨, 2013.
- 신종원 편, 조경철 역, 『일본인들의 단군연구』, 민속원, 2009.
- 야마사키 겐타로 저, 이시준 외 역, 『조선의 기담과 전설』, 제이앤씨, 2014.
- 우스다 잔운 저, 이시준 역, 『완역 암흑의 조선』, 박문사, 2016.

- 우스다 잔운 저, 이시준 외 역, 『암흑의 조선』, 제이앤씨, 2012.
- 이시준·김광식 외, 『식민지 시기 일본어 조선 설화집 기초적 연구 2』, 제이앤씨, 2016.
-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2003.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2022년 4월 6일 접속

### 3. 논문

- 권동우, 「근세 중기 일본 지식인의 삼한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7,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6, 217~249면.
- 권태효,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문헌신화 자료 수집 및 정리 현황과 문제점」, 『한국민속학』 44, 한국민속학회, 200, 5~47면.
- 김광식, 「근대 일본의 신라담론과 일본어 조선 설화집에 실린 경주신화·전설 고찰」, 『연민학지』 16, 연민학회, 2011, 151~187면.
- \_\_\_\_\_, 「신래현과 ‘조선향토전설」」, 『근대서지』 14, 근대서지학회, 2016, 437~459면.
- \_\_\_\_\_, 「우스다 잔운과 한국설화집 『조선총화』에 대한 연구」, 『동화와 번역』 20,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연구소, 2010, 13~40면.
- 김영남, 「『조선동화집』에 나타난 ‘미’의 ‘기술’에 관한 고찰」, 『민속학연구』 16, 국립민속박물관, 2005, 53~74면.
- 김영주·이시준, 「에도시대 출판물 속 단군신화」, 『외국문학연구』 63,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6, 9~29면.
- 김환희, 「<나무꾼과 선녀>와 일본<날개옷>설화의 비교 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가능성」,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85~116면.
- 류정월, 「근대 설화집의 여성 형상화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6, 65~100면.
- 박미경, 「일본인의 조선민담 연구고찰」, 『일본학연구』 28, 단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9, 73~93면.
- 박성혜, 「근대계몽기 단군 이야기의 양상과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박중훈, 「일제강점기 정인섭의 친일활동과 성격」, 『역사와 경계』 89, 부산경남사학회, 2013, 177~215면.
- 사쿠라자와 아이, 「근대 일본에서의 단군론의 성립」, 『인문학연구』 31,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85~101면.
- 심희찬, 「일선동조론의 계보학적 검토를 위한 시론」, 『한일관계사연구』 65, 한일관계

- 사학회, 2019, 165~205면.
- 염희경,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나타난 호랑이상」, 『동화와 번역』 5, 동화와 번역 연구소, 2003, 7~46면.
- 윤영민, 「조선 총독부 간행 『朝鮮語法及會話書』 연구」, 『일본어교육연구』 48, 한국일어교육학회, 2019, 143~159면.
- 이승일, 「오다 미키지로(小田幹次郎)의 한국 관습 조사와 관습법 정책」, 『한국민족문화』 4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169~209면.
- 이시준·김광식, 「1920년대 전후에 출판된 일본어 조선 설화집에 관한 기초적 연구」, 『외국문화연구』 53,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화연구소, 2014, 265~282면.
- 장 신, 「3·1 운동 직후 잡지 『동원』의 발간과 일선동원론」, 『역사와 현실』 73, 한국역사연구회, 2009, 269~301면.
- 조형근·박명규, 「식민권력의 식민지 재현전략-조선총독부 기관지 『조선』의 사진이미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90, 한국사회사학회, 2011, 175~219면.
- 조희웅, 「일본어로 쓰여진 한국설화/한국설화론(1)」, 『어문학논총』 24,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5, 1~26면.

## The Characteristics of Dangun Myth in Modern Joseon Legendry Written in Japanese

Park, Seong-hye

This paper studies the form and characteristics of the Dangun Myth in Joseon legendry written in Japanese in Modern era. This paper discovered that a total of 13 Japanese Jo Joseon legendry texts containing the Dangun myth were published between 1891 and 1943. These 13 text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types depending on whether they include a description of Dangun discourse. First, Dangun myths which do not refer to Dangun discourse can be divided into the two sub types. One type summarizes the Dangun myths in *Donggukseonggam*, or *Samgukyusa* and the other type are adaptations of the Dangun myth in *Samgukyusa*.

First, the *Donggukseonggam* record of the Dangun myth was composed in 1891. It is indicated that the Japanese people recognized Dangun as the historical origin of Korea. Another text composed in 1908 confuses Jumong and Dangun. Second, in the case of the adaptation of the myth of *Samgukyusa*, the narratives focused on the transformation of bear and tiger and the marriage of the bear and Hwanung, and this trend continued from 1919 to 1943. This shows that the storytellers were not interested in Dangun's birth or the founding of Gojoseon, and the Dangun myth was no longer considered sacred. The national myth was transmitted and enjoyed only as a folktale.

Next, the myth in which Dangun discourse is described can be divided into those that emphasize the theory of Japan and Korea's ancestral homogeneity and those that claim that Dangun myth was fabricated. In both cases, the Dangun myths of *Donggukseonggam* or *Samgukyusa* were fully reprinted. Meanwhile the texts arguing that the Dangun myths were fabricated followed the arguments that had been put forward by contemporary Japanese scholars.

Keywords: Dangun, Dangun myth, Joseon legendry written in japanese, Modern,  
Usuda Zanun, Nakamura Ryōhei, Jeong In-Seop, Shin Rae-Hyun

접수일자: 2022. 3. 31.

심사기간: 2022. 4. 1.~2022. 5. 10.

계재결정: 2022. 5. 10.

